

협회장동정



- ▶9월1일:한우왕물류센터
개장식 참석(주관:경북대
구한우협동조합)
- ▶9월4일:미국산 쇠고기 수
입과 한미FTA 긴급 토론
회 참석

- ▶9월7일:단미사료협회 친환경 축산물 생산 국
제심포지움(센트로그랜드블룸호텔), 한국동
물자원과학회 축산물 안전성 국제심포지움
참석(COEX 아셈홀)
- ▶9월8일:한우종축생산농가기술교육 참석
(본회 회의실)
- ▶9월10일:제3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참
석(포천일고등학교)
- ▶9월14일:전국한우협회 주최 창립 7주년 기
념식 및 제6회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이천
설봉공원)
- ▶9월18일: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
협의회 참석(본회 회의실)
- ▶9월19일:제12차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 참석(부산 BEXCO 컨벤션홀)
- ▶9월21일: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참석
(이천시 공설운동장)
- ▶9월23일~27일:일본 북해도 홀스타인 공진
회 참석
- ▶9월28일:제2회 양주시 홀스타인품평회 참석
(양주시 별산대놀이마당)

2006한국홀스타인품평회 참가업체 부스배정



본회는 지난 9월 15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참
가업체들을 초청한 가운데 2006한국홀스타인품
평회에 행사에 따른 전시업체 부스배정을 실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준비사항 설명과 함
께 55개 참가업체의 부스위치 선정 및 기타 건
의사항 및 숙지사항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돼지 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 개발,
송훈 박사 초청 특강



본회(회장 조병대)는 9월 15일부터 12월 중순
까지 (현)한경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송훈 박
사를 초청, 매주 월요일 하오 1시부터 3개월 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축유전능력평가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종돈개량부(부장 장현기)는 새로운 유전
능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돼지경제

형질의 육종가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발 지수 산출 서비스 문제점 중, D/B시스템과 자료의 급속적인 양적 증가로 인한 작업속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유전능력평가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돼지 유전능력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 개최



본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9월18일 오전11시 본회 소회의실(축산회관)에서 한우능력평가대회 우영목 협의회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조병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능력평가대회는 우리나라 고급육 생산의 선구자적 역할과 함께 능력검정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서 수입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대회”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한우농가로 하여금 한우의 혈통을 보존, 뿌리를 찾아 유전능력을 향상시켜 높은 소득을 취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우영목 협의회장은 “한우능력평가대회

가 기반이 되어 각 지역의 브랜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로 인해 대회가 다소 축소된 감이 없지 않지만 대회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본 대회의 예산 일부를 농가 스스로 부담하며 혈통을 기초로 하여 능력을 평가받는 유일한 대회라고 설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상식, 시식회, 전시회 장소 및 예산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11월14일과 1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알림

본회에서 주최하는 2006한국홀스타인품평회와 관련하여 품평회 기간 중 축산관련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젓소심사안목 증대와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함양을 도모하고자 젓소심사기술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시 간 : 10월 18일(15:05~16:05), 10월 19일(13:05~14:05)

2. 강 사 : 유우개량부 심사과장 김은길

3. 교육내용 : 젓소선형심사 이론 교육 및 실습

4. 교육방법 :

가. 전용 심사기술교육장 준비

나. 출품우중 2~3두 선정하여 실제 심사 실시

다. 교육자료는 참가대학에 한하여 교부

5. 준비사항 : 필기도구 준비

※ 참가신청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젓소심사기술교육 담당: 김은길, 전화 588-9301, 팩스 3471-3929)

우성사료, 고객농장 브랜드인
 '의성마늘포크' 우수상 수상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고객농장 브랜드인 의성마늘포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6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에서 돼지고기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의성마늘포크는 14개 농가가 사료·종돈 통일 및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의성 축협·의성군 공동브랜드다. 의성지역 생산마늘을 가공해 비육후기사료에 첨가해 급여하고 있으며, PIC코리아 종돈으로 통일했다.

고기내 수분 흡착능력이 뛰어나 육즙이 풍부하고 보수력이 높아 영양소의 유출이 적으며, 불포화지방산 함유량이 높아 건강에 좋고, 육질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의성마늘포크는 농림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 무이자 자금 5억원을 받았다.

(주) 중앙진테크, (ABS) 종모우 4두 전체 100만 두 이상 판매 (밀리언 셀러) 종모우에 등재

젓소 종모우 100만두이상 판매된 정액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었다. 이중 ABS종모우는 4두로써 사우스 윈드(SOUTHWIND BELL OF BARLEE / 120만개) 및 컨빈서(WA-DEL CONVINCER / 110만개), 다이하드(DIE-HARD / 110만개), 로이(ROY / 110만개) 등이다.

특히 사우스 윈드는 최종판매 시까지 120만 스트로우가 판매되어 ABS 판매 종모우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보여주듯 본 종모우는 현재 많은 종모우들의 혈통보존 종모우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목장들의 혈통 관리자료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종모우 명이 되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종모우는 썬니보이(SKALSUMER SUNNY BOY)로 네덜란드 생산정액이다.

더불어 약 100여 두의 종모우가 600,000개이상 판매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BS의 종모우로는 주어러(JUROR), 더스터(DUSTER), 폴(PAUL), 터치다운(TOUCHDOWN), 힐튼(HILTON), 알빈(ALVIN), 에스맨(S-MAN), 타부(TABOO), 피펜(PIPPEN) 등이다.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12두의 블랙스타(BLACK STAR) 아들 종모우들이 전체 1,100만개의 정액 판매를 하여 최고 수위를 차지하였다.

(ABS) 미국종모우 “다이하드” “로이” 판매 100만 스트로우 달성

지난 8월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 ABS

사의 다이하드 29HO8538 Die-Hard 와 로이 29HO9023 Roy 각 세계 판매량 100만 스트로우를 넘어 밀리언 셀러(생애 전체 100만개 이상 판매된 종모우) 정액에 등재되었다.

이는 ABS 자체적으로도 오래 전 100만개 판매를 돌파한 사우스 윈드 및 최근의 컨빈서에 이은 3,4번째 종모우이다. 특히 다이하드는 서울 우유조합 추천 종모우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낙농가에도 판매되어서 매우 친숙한 종모우이다. 판매 당시의 성적은 외모 특히 유방 부위에 특징을 보였다.

로이는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체형 특히 외모 점수 및 유방 점수가 한때 3.00이 넘었던 종모우로 일본, 캐나다 등 체형을 중시하는 국가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 로이 종모우는 품평회 출품축 생산(SHOW TYPE BULL) 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전 세계 품평회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종모우이다.

두 종모우 모두 현재는 한국 판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생산 및 판매가 되고 있어 계속적인 기록 경신에 기대 해 볼 만하다.

가축위생방역본부,

농림부장관에게 소부루세라병 검진 시료채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9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평창 유동목장에서 소부루세라병 방역현장을 시찰한 농림부장관에게 소부루세라병 검진 시료채취 현황을 보고하고 혈액채취 시연회를 가졌다.

최상호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방역본부의 조직 및 인력,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특

히 소부루세라병 보완대책 추진에 따른 시료채취 업무량 증가와 관련 “1개월간 시료채취 업무량은 보완대책 이전 19천두에서 현재는 51천두로 264%가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외 연장근무, 휴가단축을 실시하고 경북 예천,상주,경주,영천, 전남 고흥 등 적체지역은 특별지원으로 민원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본부장은 지난 8월 10일 경북 예천지역의 적체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사동원령을 발령, 53명의 방역사가 214농가를 방문하여 신청물량의 95%에 해당하는 814두를 채혈함으로써 예천군 적체물량을 일시에 해소했다며, 향후 검진물량이 증가될 경우 각 도별 특별지원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료채취 이후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앞서 방역사들의 예찰 및 채혈업무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적체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우농가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홍수 장관은 강원도청,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협, 한우농가 등과 소부루세라병 보완대책 추진과 관련 현장에 로상황에 대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조기 지급 방안과 적체 물량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농림부, 가축분뇨 자원화 적극 추진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일환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실적이 우

수한 5개 시·군을 선정해 2007년에 총 20억 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노력도, 액비저장조 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실 사례, 관내 부적정 처리사례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시·군 선정절차는 시·도에서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 분석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상위 2개 시·군을 농림부에 추천하면 농림부는 추천 시·군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 가축분뇨자원화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대학교수, 연구·지도기관, 선도농가로 구성된 권역별 세미나도 18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연 것을 시작으로 19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 대강당, 21일 전북 농민교육원, 22일 경북 대구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개최한다.

진흥회, 기준량 인수도 관련 제도개선 단행

‘목장폐업’은 ‘진흥회와의 생산계약 해지’를 의미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지난 7월 13일 2006년 제1차 임시 기준원유량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 원유량 인수도 승인과 관련한 두 가지 제도개선을 7월18일 시행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 중 첫째 조치는 ‘기준 원유량 인수도 전제조건인 목장폐업의 개념을 진흥회와의 생산계약해지로 정의’한 것으로써 진

흥회에 납유하던 농가가 목장폐업 및 기준원유량을 인도한 후에 다른 유업체의 쿼터를 매입하고 해당 유업체로부터 납유 승인을 득할 경우 낙농경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조치는 ‘1가구 2목장인 낙농가가 2목장을 모두 폐업해야만 기준원유량 인수도가 승인되는 것을 한 목장만 폐업해도 기준원유량 인수도를 승인키로 한 것’으로서 1가구2목장의 폐업요건이 완화되었다. 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원유량 인수도 제한조치는 2002년 11월 진흥회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실시할 당시 다른 유업체는 이런 생산조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진흥회 낙농가가 폐업하면서 기준원유량을 인도하고 다른 유업체로 가서 납유할 경우 전국적인 원유 증산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으나, 이제 대부분의 유업체가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 더 이상 이러한 제한을 유지할 의미가 사라졌다’고 이번 제도개선의 이유를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농협 축산업대책 재원 확보 ‘관건’ 5조원 소요 축산발전기금 확충 필요

농협중앙회가 8월28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이 제시한 대책안은 축산농기들의 생산지원과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가축개량 분야 등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조 1조5,172억원, 융자 3조7,358억원 등 총 5조2,53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은 이 같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면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부담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축세, 축산물 수입관세,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축산 부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농협은 또 축산발전기금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 부문의 피해를 감안, 별도 기금으로 영구 존치하는 한편,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경마산업에 대한 레저세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마권 매출액의 10%인 레저세를 5%로 낮추면 지방교육세 등이 자동으로 인하돼 5,000억원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축산발전기금도 최소 2,7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아직 한·미 FTA도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추가 재원 확보를 논의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재원 문제는 2003년부터 계속된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맞물려 있어, 향후 예산당국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농림부 축산국의 관계자는 “농업계에선 한·미 FTA 등의 변수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예산당국은 119조원으로 댔다는 분위기”라며 ‘이 문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농협이 제시한 종합대책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축산경제 ‘경쟁력 제고대책’ 마련
핵심농가 1만호 육성, ‘축산물소비장려법’ 추진
농협 축산경제부문이 경쟁력 있는 핵심 축산

농가 1만호 육성과 광역단위 공동브랜드 20개 육성 등 FTA등 개방화 시대 대응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제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

농협은 최근 농협 신관 3층 회의실에서 남성우 상무와 농협FTA대책반원, 축종별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미국과 FTA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팀장급 중심으로 한·미FTA 대책반(10명)을 구성하고 대학교수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협운영자문위원 자문, 내부토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산업 발전대책 마련 연구용역 중

낙농·유제품 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최근 ‘낙농유제품의 관세 체제 정비방안’과 ‘한·미 FTA와 우유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방안’ 2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유제품 시장형성과 관세율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내 유제품 관세체제 정비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혼합분유 품목분류 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

또 한·미 FTA와 우유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우유소비 정책의 원

인, 한·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 우유소비 확대방안 등으로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혜영 낙농육우협회 과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12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향후 WTO, DDA 농업협상 및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한 낙농·유제품 산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역원,

濠산 수입생우 블루팅 이어 ‘요네병’까지 양성축 4두 폐기처리 후 30~60일 후 다시 정밀 검사

수입된 호주산 생우 8백43두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4두에서 2종법정전염병인 요네병이 발견돼 검역기간을 연장하고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산 수입생우는 8백51두가 선적돼 국내로 수송되던 중 1두가 폐사했으며 계류장에서 검역을 받던 중 스트레스 등으로 7두가 추가로 폐사됐다.

또한, 지난달 31일 4두에서 가성결핵이라고도 하는 만성소모성전염병인 요네병에 양성반응을 보여 소각처리될 예정이며 나머지 동거축에 대해서는 30일 가량 임상관찰을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도 추가로 발견될 경우 양성축은 폐기처리하고 동거축은 또 다시 30여일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요네병 검출에 대해 2개월 전 호주 현지에서 질병검사를 실시했으나 잠복기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향후 관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밀검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과 2003년에도 호주산과 미산 수입 생우에서 블루팅이 발견돼 폐기처분되고 40일간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은바 있다.

한편, 요네병은 2종법정전염병으로 젖소 등 우제류의 반추가축에서 발생하고 감염되면 설사와 급격한 체중감소 증상을 보이며 굶주린 소처럼 왕성한 식욕을 보이기도 하는데 2살 이하는 폐사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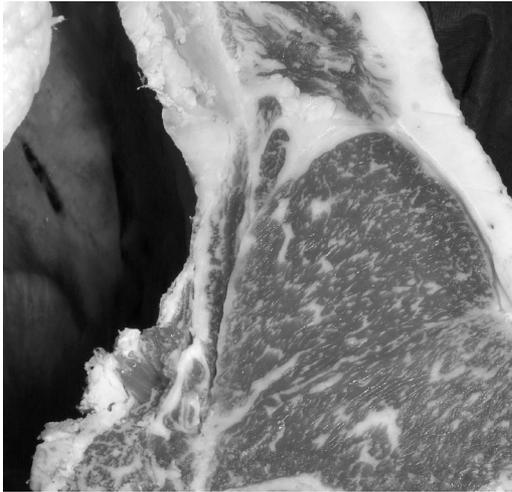
특히, 요네병은 치료방법이 없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만약 유입될 경우 농가에 질병이 확대돼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출범



경주축협(조합장 최삼호)은 기존의 경주버섯 한우브랜드의 명칭을 “경주천년한우”로 개명하여 기능성브랜드가 아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육질이 우수한 고급육생산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주천년한우” 브랜드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농협충북지역본부,
2006 한우고급육품평회 개최



최우수상을 받은 지육의 등심단면
(1++A등급, 442kg, 12mm, 110cm², 67.60)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채희대)는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2006 한우고급육품평회' 를 지난 14일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에게 양축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충북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이번 심사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역본부와 충북지소에서 2명의 심사위원이 담당했다.

이번 대회 등급판정 심사결과 ▲최우수상 : 강병국(옥천군-옥천영동축협) ▲우수상 : 최천식(충주시-충주축협), 이덕희(영동군-옥천영동축협) ▲장려상 : 김진태(음성군-음성축협), 이재호(청원군-청주축협), 진기매(제천시-제천단양축협)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청풍명월" 광역브랜드 참여농가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여 브랜드 관계자들을 고

무시했다. 이번 품평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입상축 전시는 9월13일 제30회 충북한우경진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품평회에 출품된 26두의 1등급 출현율은 92.9%나타났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병국씨의 출품축은 심사당일(14일) 전국 거래가격 중 최고가인 8,415,040원(1++A등급, 지육중량 442kg, 단가 19,120원/kg)을 기록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책임운영기관 지정 5년차를 맞아 『하나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혁신 캐치프레이즈 하에「혁신적 TEAM WORK 창조를 위한 전직원 워크숍」, 「GOOD IDEA 공모 행사」, 「현장전문직 자기혁신」등을 통하여 전직원의 목표공유·태도변화를 유도하여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획득하였다.

〈주요 추진성과〉

●홈페이지 통한 전 연구과제의 사이버심사제로 과제의 뚜렷한 목표설정과 성과관리, 성과에

다른 연구원 평가, 연구성과와 재정투입을 연계한 예산운영, 양적성과 평가위주에서「시기성, 혁신성, 객관성, 실용성, 파급성 및 산업화 수준」의 질적 평가를 도입

●한우고기 DNA 판별기법 실용화, 가축유전체 해독 국제 컨소시엄 참여, 돼지 유증내 사람 빈혈치료제(hEPO) 생산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고객지원전담부서 지정·운영, 연구소에서 개발·보급한 결과물에 대한 현장 활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현장에 반영,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토요 민원상황실」 및 민원시「고객의 소리카드」동봉으로 불만요인 청취 및 만족도 평가, 민원분석 수수료 절감(29.2%→63.7%) 및 분석기간 대폭 단축(10일→3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통한 신속한 결과 통지 등

함평축협,

한우송아지 경매시장 개장

함평천지한우로 널리 알려진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이 전자경매시장을 개장해 공정거래를 통한 농가 실익증대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달 27일 함평축협 가축시장에서 개장된 전자경매시장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한우전문가축시장 육성과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유통 부조리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량한우 생산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희구 조합장은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위한 예비심사를 강화하면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농가지도 병행할 것”이라며 ‘농

가 소득증대 차원의 판로확보와 브랜드 사업을 연계한 고급육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군, 브루셀라 청정화 의지 돋보여

한우 브루셀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두수 채혈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지역이 있다.

강원도 홍천군은 지난 8월1일부터 1달여 동안 공수의사 5명과 군청 방역과 직원 1명을 투입해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 전 두수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 소가 한 마리 없는 것으로 나와 타 지역 농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남웅 한우협회 홍천군지부장은 “올해 11월부터 강제폐기우에 대한 보상금도 80%로 떨어지고 브루셀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홍천지역에 대한 전두수 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난 8월부터 군청, 방역본부와 한우협회가 함께 전두수 채혈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물론 결과가 기대이상으로 좋게 나와 다행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최소 3개월에 한번씩 전 두수 검사를 실시해 홍천지역을 브루셀라 청정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혈검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어디보다 홍천한우협회의 역할이 컸다.

한우협회는 회원농가들이 직접 나서 회원농가는 물론 비회원농가들의 소까지 전부 채혈하면서 한 농가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미국, 젓소종모우 선발에 유전자 분석기법 활용

미국 농무성이 연간 1천2백여두의 홀스타인 젓소종모우 후대검정을 위해 매년 3천만 달러를 쓰며 5~6년이 걸리는 기존의 젓소 후대검정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젓소 유전자 분석기법 도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유전체 확대 선발법'으로 명명된 이 기법은 5만5천여 개의 젓소 유전자지표를 분석하여 낙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전적 특징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 기법의 도입 시 종모우의 후대검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는 미국 내 대학연구진은 물론 캐나다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정액 처리업 단체인 전국 가축축육업협회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06년 음용유 소비량 6년만에 최대 증가

미국내 음용유 소비량이 저지방유의 매출호조에 힘입어 지난 '00년이래 최대 증가를 보인 1천238만 톤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저지방유의 매출은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무지방유는 2.7%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반면 전지방유는 2%, 가공유는 0.3% 매출이 감소하여 전체 매출증가율은 1.4%로 집계되었다. 한편 금년도 미국내 음용유 시장중 유기농 우유 판매량은 1.85%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전지유가 5만3천톤, 무지방 유기농우유가 17

만6천톤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대규모 낙농목장 냄새 배출억지법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조아퀸 지역 내 1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낙농목장들에게 적용되는 냄새 배출억지법이 지난 6월 통과되어 본격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낙농들은 냄새 배출억제를 위해 19개의 각종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옥외에 저장되는 분뇨는 년중 4회 이상 반출하여야 하고, 60일의 휴지기간이 필요하며, 특히 10월부터 5월까지 야외보관시에는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덮어주어야 하는 것등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지역내에는 430여개 낙농목장이 1천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데, 규제위원회는 이 규정 시행으로 목장의 휘발성 유기물질의 배출량을 연간 28%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사료곡물 수급 불안 심화

최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 2006/2007년 세계 곡물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6/2007년 세계 사료곡물 재고량은 1억 2746만톤으로 전월예상치 1억2868만톤에 비해 0.9%가 줄었다. 이는 2005/2006년 1억6761만톤에 비해 24% 감소된 수치다. 이 가운데 세계 대두 재고량은 4997만톤으로 전망돼 전월예상치 5301만톤에 비해 5.7%가 줄었고 2005/2006년 5251만톤에 비해서도 4.8% 감소됐다.

세계 대두박 재고량도 516만톤으로 전월예상치 559만톤에 비해 7.7%, 2005/2006년 589만톤에 비해 12.4%가 각각 감소됐다.

세계 옥수수 재고량은 9288만톤으로 전망돼 전월예상치 9122만톤에 비해 1.8% 증가되기는 했으나 2005/2006년 1억 2704만톤에 비해서는 26.9% 감소됐다.

中, 유제품 산업 '고속 성장'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유제품 산업이 매우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차이나뉴스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슈퍼마켓이나 대형 쇼핑몰 구석 한 코너에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들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에 걸쳐 중국의 유제품 시장은 9배로 성장했으며 액상 우유제품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유제품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의 유제품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유제품 산업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산업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유제품 시장이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서양 국가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300kg의 우유를 소비하며 인도에서는 인당 우유 소비량이 연 80kg에 달한다. 중국의 경우 현재 인당 우유 소비량은 연 22kg 미만으로 전 세계 평균의 5분의 1에 그친다. 중국의 엄청난 인구를 감안하면 중국은 유제품 소비량의 거대한 시장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낙관론자들의 의견이다. 긍정적인 의견에 제동을 거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중국의 수요-공급 관계가 급격히 변화해왔으며 대도시나 중도시의 시장은 꼭 차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가격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는 우유 값이 물보다도 싸다. 가격 전쟁은 유제품 산업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일부 유제품 생산업체들의 수익률은 6% 미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이 중국의 미래 유제품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관론자들은 전망했다.

중국의 많은 지역 회사들이 유제품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유 마시는 습관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 어떤 회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kg의 우유를 마시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2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다. 중국에서는 어떤 유제품 회사가 초등학교에 우유를 기부했다는 기사가 자주 발표되고 있다.

한 시장 애널리스트는 "아이들 모두가 하루에 500g의 우유를 마신다면 2억명의 초중학생들은 매년 4000만톤의 우유를 소비하는 셈"이라며 "모든 중국인들이 하루에 500g의 우유를 마신다면 세계 전체 우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호주,

젖소 초유 강훈련 운동선수 체력보강에 효과

젖소의 초유가 강한 지구력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체력 보강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퀸즈랜드대학의 세실리아 싱 연구팀은 29명의 남자 장거리 사이클 선수를 선정해 40km 타임 트라이얼 기준 기록을 쟁 후 일부

는 매일 10그램의 젓소 초유가 들어간 체력 보충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은 유장이 들어간 보충제를 주는 실험을 8주간 계속했다. 이후 8주차에 이들을 5일 연속 강훈련을 시키고 훈련 전후의 기록을 측정한 결과 통상적인 훈련기간에는 볼 수 없었던 차이가 5일 연속 강훈련 기간에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강훈련 후 측정 기록에서 초유를 먹은 그룹이 우수한 기록을 세우며 피로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극도로 심한 운동 부하를 받는 선수들에게 젓소의 초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면역체계와 호르몬, 신경계에 작용해 격렬한 운동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포유류의 초유는 출산 후 며칠간 나오는 것으로 각종 영양소와 항체, 성장 촉진제가 풍부해 면역체계가 억제된 아이들의 질병과 설사를 막고 소화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유산균음료 34.5%, 금지 첨가제 성분 검출

중국에서 시판중인 유산균 음료 가운데 34.5%의 제품에서 첨가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당국이 생산 및 판매 중단 지시를 내렸다.

경화시보(京華時報) 20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 질검총국은 19일 시중에서 무작위 수거한 223종의 유산균 음료의 성분을 분석, 금지 첨가제 성분이 검출된 77개 제품을 불합격 처분하고 이중 18개 제품명을 공개했다.

질검총국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즉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유

산균 음료 제조 및 가공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불합격 제품에는 유산균 음료에 첨가제로 사용할 수 없는 글리신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질검총국은 밝혔다.

글리신은 신맛과 쓴맛을 없애고 단맛을 내게 하는 첨가제로,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해 건강의 균형을 깨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육과 성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 중국에서는 조미료와 콩을 재료로 한 음료에 한해 1g/kg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그밖의 제품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당국은 일부 유산균 음료 제조업체들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분유 대신 글리신을 사용해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전농 낙농경영체험 발표회 개최

일본 농협조직인 전농은 9월15일 동경 전농 빌딩에서 전농 낙농 경영체험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최우수상에는 이와테현의 마츠모토씨가 선정되어 농림수산성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에는 후쿠시마현 코이케씨(48)가 선택되었다. 마츠모토씨는 경산우 68두, 초임우, 육성우포함 113마리를 기르며 초지 면적이 약 50 헥타르로, 조사료는 거의 자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두당 연간 유량 9000킬로 전후를 달성해 원유 1킬로당 생산비를 77엔으로 억제한 점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이케씨는 연간 200-300명의 목장체험을 실시하고 경산우 사육두수가 36두에 불과하나 1마리 당 산유량이 1만 킬로를 넘는 것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